



수급측면에서 본 18달러 固定油價制의 전망

지난해 배럴당 7달러 수준까지 폭락했던 국제원유 가격은 금년 2월부터 실시해온 固定油價制의 성공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은 국제원유 가격을 배럴당 18달러 수준으로 지속시켜오고 있다. 그러나 18달러 油價수준이 과연 OPEC에서 합당한 수준이나가 문제로 등장했다. 다시말해 18달러 수준이 산유국에게는 적절한 석유판매수입을 보장해주고, 다른 일차 에너지源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석유 소비국에게는 어느 代替에너지에 비해 가장 저렴한 가격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아니면 이 수준이 OPEC에게는 가격을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없는 피할 수 없는 고정 가격인가! 이에 대해서는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1986년의 가격 폭락내지 저유가 현상은 수요를 자극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OPEC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1985년과는 비슷하고 1984년에 비해서는 떨어지고는 있는 수준이었지만, OECD 전체석유수요는 1978년 이후 가장 큰 2.5%신장, 다시말해 90만b/d가 늘어났다. 대부분의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했다. 휘발유의 경우 2.7%, 중간유분 제품의 경우 2.6%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수요증가 변화를 보인 것은 연료유이다.

원유가격이 3배까지 급등했던 1973년부터 2차석유 위기가 일어났던 1979년까지 OECD 지역의 연료유 수요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1974년 OECD의 총 연료유 수요는 하루 980만배럴 수준이었고, 1979년까지 940만배럴로 약간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1979-1985년 기간중에는 수요가 반감, 470만배럴까지 떨어졌다. 1986년에 접어들면서 10년만에 처음으로 OECD 지역의 연료유 수요가 늘어났다. 다만 日本에서의 계속적인 수요감소와 유럽에서의 1.4분기 동안 침체 현상을 보여 수요증가폭은 미미했다. 이러한 수요증가 현상은 다른 대체연료에 의한 연료유의 대체가 다시 연료유로 회복되어, 잃었던 시장 점유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1985년에 연료유 수요가 16% 증가했다.

18달러 기준 유가 수준은 지난해 전반에 걸쳐 지배한 가격은 아니었다. 특히 가격경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重質 연료유의 가격은 지난해 이후 3분의 2가 상승했다. 유황함유량 0.7%인 연료유의 멕시코 연안에서의 평균가격은 지난해 7월 배럴당 10달러였고, 3.4분기에는 11달러 수준을 면치 못했으나, 금년 5월에 들어 60%이상 상승한 18달러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발전용 연료로 투입되는 동 연료유 코스트는 지난해 7월 美國 전역에서 100만b/d 당 1.84달러 수준이었으나 2.4분기에는 2달러대로 접근했다. 현재는 美國 동부해안 시장에서 3달러 이상을 하고 있다. 어쨌든간에 美國에서의 연료유 수요가 또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연료유 가격이 석탄, 천연가스과 경쟁할 수 있는 임계점 이상으로 상승한데다가 석탄 및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일로에 있어 경쟁력에서 열세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서부유럽 및 日本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달러가치의 하락과 原油가격의 하락때문이다. 현재 석유제품 가격은 점차로 회복되고 있는데 일단

⑥ 原油價 18달러 수준을 유지시키는 한, 美國의 石油 및 NGL 생산은 다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85년 12월에서 86년 12월 사이 美國내 활동시추정수는 1,900개에서 1,000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 후 原油가격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이와같은 시추활동의 감소추세를 돌려놓지는 못했다. ㉠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더한층 상승될 수가 있다. 금년 처음 2개월간 주요 서유럽 국가에서의 수요는 지난해 보다 약간 떨어졌다.

요컨대 18달러 기준유가가 28달러유가보다 수요를 더 자극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음 한가지 문제에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현재의 油價수준으로는 石油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IEA는 금년도 OECD지역 수요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0.9%(30만b/d) 증가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수요증가율은 연간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제3세계의 석유수요 증가율도 금년에 1.7%로 내다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OPEC는 중대한 시련을 맞게 된다는 결론이다.

그러면 공급측면에서의 전망은 어떠한가. 18달러 수준으로 과연 非OPEC 에너지 개발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금년 2월중 美國내 原油 및 NGL 생산량은 하루 110만배럴로 86년 2월보다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油價 하락때문이었다. 1986년에 저유가 덕택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과는 달리 이와같은 생산량 감소 현상은 OPEC에게는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다. 18달러 수준을 유지시키는 한, 美國의 석유 및 NGL 생산은 다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1985년 12월에서 1986년 12월 사이 美國내 활동시추정수는 1,900개에서 1,000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 후 原油가격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이와같은 시추활동의 감소 추세를 돌려 놓지는 못했다. 금년 3월에 들어서는 오히려 더 줄어 750개 정도가 고작이었다. 시추활동이 곧 회복되지 않는 한 美國내 산유량 및 NGL 생산량은 비록 소폭으로나마 더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

美國을 제외한 여타의 지역에서는 美國만큼 뚜렷한 시

추활동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1986년 非OPEC 산유국중에서 산유량 감소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 이집트, 濠洲 등이 고작이었다. 멕시코는 산유량을 다시 증대시킬 수 있으나, OPEC에 동조하는 나라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이집트와 濠洲는 오래전에 증산을 감행, 현재는 1985년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다.

北美와 OPEC국가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시추활동은 1985년 12월부터 1986년 12월 사이 활동 리그수를 기준으로 볼때 약 20%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것은 코스트 요인때문이라기 보다는 석유 회사들의 캐시플로우(Cash-flow) 문제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시추활동의 침체는 또 다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사실 18달러 유가는 몇군데 생산비가 극도로 많이 드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석유자원개발을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다.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대응해 개발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로 濠洲, 브라질, 中共, 콜롬비아, 印度, 노르웨이, 오만, 시리아, 북예멘, 南예멘 등을 들 수 있다. 18달러 유가하에서 브라질 印度같은 몇몇 개발도상 석유수입국에서는 어쩌면 탐사개발 활동을 자극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석유수입대전이 줄어들면 그만큼 탐사개발 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지난 12년동안 소련이 조만간 석유수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보도가 빈번하게 나돌았으나, 실체는 너무 과장한 것들이었다. 1985년에 약 30만b/d가량 석유수출량이 줄어들었으나, 1986년에는 다시 거의 종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앞으로의 전망은 오히려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 초차 있다. 1973~79년 기간동안 공산권을 제외한 非OPEC의 석유 공급량은 320만b/d가 늘어났고, 1979~85년 기간에는 600만b/d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앞으로는 양적인 면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갑자

기 멈추는 사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OPEC가 현재 갖고 있는 수요공급에 관한 낙관론을 인정하고 보면 18달러 油價는 고유가 저공급 전략과 저유가 고공급 전략간의 중간정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달러 油價정책이 달성한 것으로는 생산비가 높은 美國내 원유생산을 100만b/d정도 중지시킨 사실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美國원유 생산증가 가능성을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지역에서는 18달러 油價는 탐사·개발활동을 둔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수준은 수요를 어느 정도 자극할지는 모르나, 다른 代替연료에게 빼앗긴 포션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자극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3개월 동안에 걸쳐, 석유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지만, OPEC의 석유의존도는 머지않아 증대된다는데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또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는 또다시 OPEC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따라서 非OPEC의 석유공급량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美國의 석유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캐나다가 곧 이를 뒤따를 것이다. 北海의 英國광구가 이미 생산의 최고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소할 것이고, 소련의 석유수출량 역시 감소 내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中共은 국내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수출량은 감소할 것이라는데에 의견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볼때, 소비국들은 자국내 석유산업을 위해서는 보호무역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적인 석유공급과잉 사태가 사라지게 되어도 소비국들이 자국내 석유산업이 황폐화 되는 것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OPEC로서는 시장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회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예측이 들어 맞으면 더욱 좋을 것이나, 만일 실현이 안되면 또다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수요증가가 미미하고 非OPEC 석유공급이 OPEC의 시장점유율을 침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OPEC의 대부분 산유국들은 가격이 계속 상승, 30달러 수준에까지 접근할 것이라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고 시장을 상실한다해도 18달러 수준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못한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머지않아 非OPEC석유공급은 실제로 감소할 것이라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과잉 상태에서 油價를 상승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격인상은 OPEC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OPEC가 저유가 고공급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아직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의 쓰라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OPEC산유국도 그러한 대안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18달러 固定油價制를 도입할때도 그 수준이 최적의 가격형성 수준이라고 생각한 회원산유국은 없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면 OPEC는 또다시 물량공세로 가격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유효한 가격통제자 역할을 해온 OPEC는 붕괴되고 가격은 배럴당 5-7달러에서 형성되는 사태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말한 것들은 당장 보기에는 먼훗날의 예상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것은 석유가격이 스스로 상승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수요공급을 떠난 인위적인 가격인상은 오래가지 못하므로 이것을 감안하여 석유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MEES)

가정에서 뿌린 정직
사회에서 꽃핀 신뢰